



제2의 인생 새로운 도전 은퇴 후 다시 찾은 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100세 시대'가 다가왔다. 어르신 일자리 및 창업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 반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커졌기 때문.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눈높이를 낮추면 경력이 최고의 자산이다.

글 김정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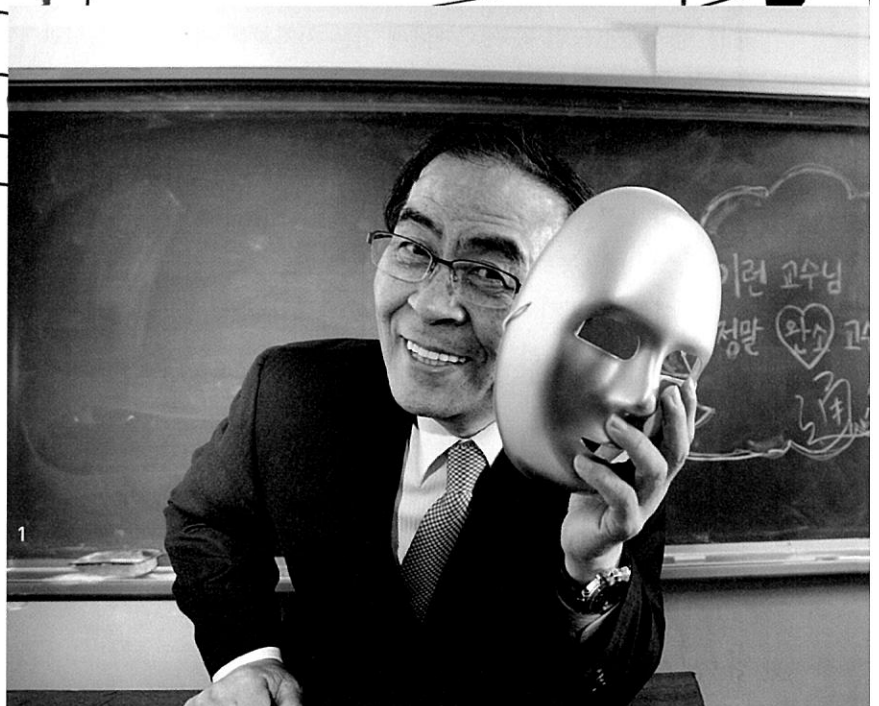
사진 이효일, 안영준, 이미화(이코노믹리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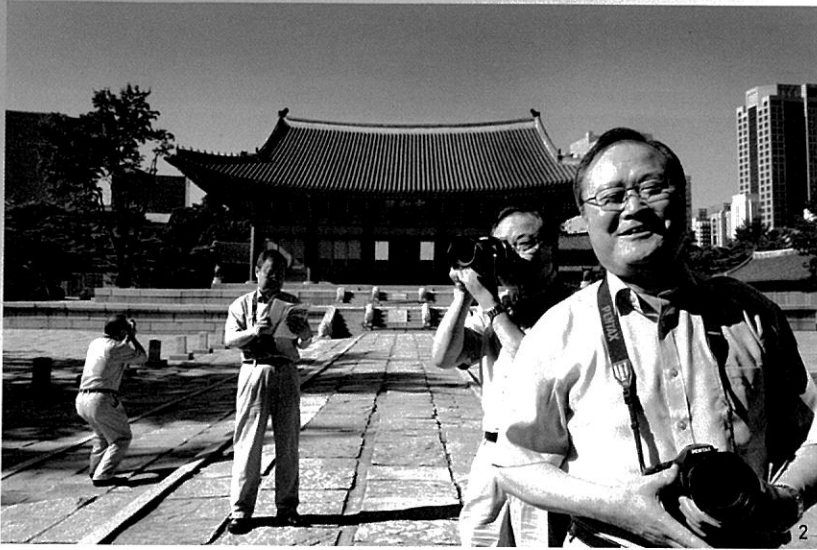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독서논술반을 지도하는 정성수 강사. 5년 전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뒤 다시 방과후 학교에서 근무한다. 초등학교 논술 관련 책도 여러 권 집필하고 학교에서 수십 년간 독서논술지도를 해왔던 경력을 학교 현장에서 다시 살리고 있다. 보수는 현직 시절의 1/3도 안 되고, 교사로서의 권위도 찾기 어렵지만,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다시 발휘한다는데 일상의 행복을 느낀다.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의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많은 기관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은 지난 2년간 '시니어 채용박람회'를 열어 많은 퇴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구직을 원하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퇴직자의 전문 경력을 활용할 기회여서 많은 기업으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지금의 경험을 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니어 재취업은 마음 한편에 미뤄뒀던 꿈을 이루는 기회이기도 하다. 양경모 씨는 한때 잘나가던 금융회사 직원이었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떠났





다. 오랜만에 찾은 자신과 가족의 시간, 아이들을 데리고 산과 들로 여행을 다니다가 아예 자연교육가가 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는 교육기관도 마땅치 않아 한국숲해설가협회의 전신인 자연환경안내자협회에 무보수 사무국장으로서 일하며 수업을 들었다. 4년간 숲해설가로 활동하다 생태 교구를 개발해 지금은 '홀씨'라는 회사를 운영한다. 6년간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넘기고 이제는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양 대표는 자신의 인생 2막의 성공요인으로 '좋아하는 일'을 꼽는다. 인생 2막은 꾸준히 품어온 소명을 실현하는 시기이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숲해설가이지만 다르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30년간 회사생활을 하다 지금은 숲해설가로 활동하는 우성운 씨는 산에 다니던 일상을 소득과 연결한 경우다. 퇴직 후 목적 없이 산에 가고, 집에 있으며 눈치 보는 것이 싫었던 우성운 씨는 1



1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의용 씨
2 역사해설가로 활동하는 이효일 씨
3 자연을 가르치는 자연교육가가 된 양경모 씨

년여 시간을 공부해서 숲해설가로 나섰다. 숲해설가의 보수는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부여되지만 보통 월 80~100만 원 수준.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부족하겠지만, 연금과 자산소득에 더해 활동비 정도를 기대한다면 적지 않은 소득이다. 우성운 씨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자신의 일상에서 새 일



동시작가이자 마술사로 활동하는 오하영 씨

을 찾기도 한다. 시니어 가운데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시니어 재취업, 창업, 자원봉사 등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블로그를 운영해서 소득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성공사례가 말하는 재취업과 창업

제2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다양해졌다.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다면 양경모 씨나 우성운 씨처럼 숲해

제2의 인생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니어 창업이나 재취업에서 주의할 점은 은퇴 이후 퇴직금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가맹비나 계약금만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또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 등을 빼돌리기도 한다. 제2의 인생설계는 무엇보다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지원센터**(www.seda.or.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창업넷**(hwww.changupnet.go.kr) 등이다. 또 시니어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이외에도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설가 외에도 다문화가정방문교사, 문화재해설사, 박물관해설사, 역사문화체험지도사, 전통놀이강사, 환경지도사 등이 있다. 봉사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다면 독거노인도우미, 베이비시터, 보육교사보조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동돌보미 등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급식도우미, 도서관도우미, 등하교교통안전원, 산불감시원, 시험감독관, 지하철도우미, 직업주례사, 환경감시원 등의 일자리가 열려있고, 취미를 살린다면 동화구연사, 바리스타, 아동극단원, 원예관리사, 실내조경사, 실버모델, 플로리스트도 가능하다. 특별한 경력은 없지만 일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면 가사도우미, 도시락조리원, 설문조사원, 주유원, 지하철택배원, 홈클린청소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야의 일들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교육이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을 하고자 정했다면 출발 전에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앞서 경험한 이들의 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한 이들이 꼽는 요인은 우선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고 이에 과감하게 재투자하는 용기와 젊은이들과의 경쟁도 불사하는 적극성이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간과 단계적인 검토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소득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또 자신 주변의 인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는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데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회사와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만 유지될 관계라면 퇴직 이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취미를 확장하여 제2의 인생으로 삼는다면 해당 분야의 인맥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미리미리 닦아 놓아야 자산이 된다. ☺